

## <토론 1>

# 「종교의 미래와 원불교의 혁신방향」에 대한 논평

이정식(교정원 총무부 차장)

1. 현재 교단은 점증하는 내외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 이유로 교단 내적인 면에서는 교화의 침체, 원활하지 못한 경제상황의 압박, 대학 등 교단기관의 사회적 대응능력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히고 있다. 외적으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환경을 비롯하여 종교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과 외면,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인 대안의 출현 등 기존의 종교적 역할로는 담당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원불교는 21세기 과연 어떠한 교단 정책 아래 운영을 해야 하는가 라는 화두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이러한 내외의 환경을 놓고 7차례에 걸친 교단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책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정책 토론회만이 아니라, 교정원 기획실을 비롯 교립대학의 다양한 연구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연구성과를 통해 좋은 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원익선 교무의 「종교의 미래와 원불교의 혁신방향」은 이러한 점에서 신선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의 미래를 현상적 차원이 아닌 당위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불교의 정책 방향을 먼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정체성 확립과 교학발전, 둘째는 평가 반성 및 제도 개선, 셋째는 교화체제의 전환 및 사회교화이다. 그리고 이를 각각 세분화하여 첫째 항목에는 1) 교법의 현실구현, 2) 불교와의 관계 확립, 3) 교학의 발전, 둘째 항목에는 1) 20세기의 교화·교육·자선·해외교화 평가, 2) 수위단과 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의 기능 분화, 3) 재가·출가 화합교단 방안, 셋째 항목에는 1) 교당 교화의 전환, 2) 교역자 후생공단의 활성화, 3) 지역 및 세계 문제 해법 제시를 제안하고 있다.

각각의 제안은 현재 교단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분야이며,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의 로드맵을 종합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 및 제안은 그간 여러 정책 토론회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이 엿보인다. 발표자인 원익선 교무에게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한다.

1) 종교의 미래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교당없는 교화라는 말은 들리지만, 교단없는 교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은 다소 이해가 어렵다. 기성 교단은 교단이라는 체제를 갖추고도 약진해 오지 않았는가. 교단은 인력관리나 재정의 효율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앙, 수행 등의 종교적 측면의 요소를 관리해 왔다. 그리고 법을 체계있게 세워 이것을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제공한 점도 있다고 본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독점은 일부분의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침소봉대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단없는 교단이라는 말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란다.

2) 정체성 확립과 교학의 발전에 대한 점도 현재 교단이 딜레마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지적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 기존의 불교 교단이나 타종교 교단과의 차별성에 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결혼의 자유는 핵심 사안 중의 하나다. 사실 영산선학대나 교학대 원불교학과의 성비 비율은 남녀 4대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향후 교화현장에서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했다고 보는가. 교단의 현재까지의 성장과정 중에는 이러한 문제가 거의 지적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발표자의 언급처럼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지 묻고 싶다.

3) 교학의 문제도 심도있게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교학은 학부 때부터 방법론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 아직 교법도 다 배우지 않고, 신앙과 수행 체계도 확립되지 못한 예비 전문출신들에게 교학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고 본다. 교법에 대한 확신과 체질화가 되면 그것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 배우게 된다. 교학 자체의 질도 문제이지만, 이처럼 선후가 뒤바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 노력을 쏟도록 도와주거나 교법을 담을 틀을 확장시켜주는 것,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하는 인문학적 소양, 불교학과 같은 기초 과목을 튼튼하게 하여 스스로 법을 향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4) 둘째는 평가 반성 및 제도 개선의 평가 조항은 원불교 100주년을 앞둔 현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개인들의 언급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하는 점이 있다. 교단의 그 많은 기관의 역사와 현황, 발전의 과정을 어떻게 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물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를 어떻게 종합할 수 있는지 묘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5) 수위단과 관련한 법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권력의 비대화를 논하고 있다. 종교는 원래 깨달은 분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법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교단이 활성화되었다고 이러한 전통을 무시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에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다.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인사 배치의 경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권력 운운 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다고 본다. 교단을 총체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면에서는 다소의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발표자가 수위단의 권한을 줄이고자 하는 보다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5) 교화제체의 전환 및 사회교화에 있어서는 교당 교화의 전환이 핵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교화 방법론의 다양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또는 지역 단위의 교화, 교육, 자선 체제를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는 토탈 교화 등

도 하나의 방안으로 확산 중에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도의 증가가 이루어졌는가는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교무의 주 교화방식인 법회를 도외시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법회라는 것은 의식과 의례를 통한 종교의 성스러움을 배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를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이러한 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직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을 더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6) 교단 재정과 관련, 사실 용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역자의 노후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교단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교역자를 등급으로 나눈 것은 노후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교무를 차별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교단 공동체는 솔직히 이러한 재정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서로의 고충을 놓고 대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렇지만 이 점은 여러 공청회에서도 설명해 왔다. 천주교의 경우, 모든 교역자가 자신의 사역에서 나온 급료를 교단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점이 원불교와는 다소 다르다고 해도 종교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그 외에도 국가와 기업,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자본주의 등에 대한 교법의 대응 방식에 대해 사회교화의 차원에서 주문한 것은 현명한 제안이라고 본다. 교단이 확장될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 중시될 것으로 본다. 많은 교학자들을 비롯, 교단 구성원들이 지혜있게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간 논의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체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논의의 장으로 잘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본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